



# 비트코인, 새로운 통화인가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인가?

이 광 상 연구원 (3705-6374)

그동안 가상통화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이 법정통화가 갖는 역할을 보다 효율적, 경제적, 익명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음.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는 아직 기존의 법정화폐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통화라기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높은 기술혁신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.

- 금년 들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.
  - 가상통화 정보제공업체인 코인데스크(CoinDesk)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2월 20일 개당 16,000달러를 상회하면서 금년 들어 1,500%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함.
  -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언젠가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투자나 투기라면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을 맞고 있음.
- 지난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닉네임의 개발자가 [www.bitcoin.org](http://www.bitcoin.org)에 게재한 논문\*을 통해 비트코인이 처음 소개된 이후 가상통화 지지자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기존의 법정통화가 갖는 역할을 보다 효율적, 경제적, 익명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음.
  - \* Bitcoin: A Peer-to-Peer Electronic Cash System(October 31, 2008)
  - 이러한 기대가 실현될 수 있으려면 가상통화가 안전한 가치저장수단과 넓은 수용성을 가진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.
  - 그러나 그동안 비트코인이 보여준 극심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가 제기되고 있음.
- 따라서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거품 논쟁보다는 비트코인이 기존의 법정통화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안통화(alternative currency)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.
  - 주식이나 채권, 부동산 권리증 등 증서 형태의 자산은 미래 소득흐름에 대한 소유권을 내재가치로 지니며, 이러한 내재가치에 기초해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적정 가격 수준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는지(거품)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.
  - 이에 비해 디지털(digital)이든 물리적(physical) 형태든 통화는 미래 특정 시점에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 이외에 다른 내재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상정되지 않음.
- 그러나 이러한 자산과 통화를 구분하는 경계가 갈수록 불명확해지고 있음.
  - 특히 신규코인상장(initial coin offering)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과 가상통화의 가격 급등\*은 과거 증시과열을 초래했던 신규주식상장(initial public offering) 열풍과 상당히 닮았음.
  - \* 신규코인상장 디지털토큰의 대금은 통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로 지급됨.



- 이에 따라 지난 12월 제이 클레이튼(Jay Clayton)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 위원장은 통화와 증권을 결합한 형태의 신규코인상장은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만큼 증권거래법상의 제반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, 투자자들은 디지털토큰 매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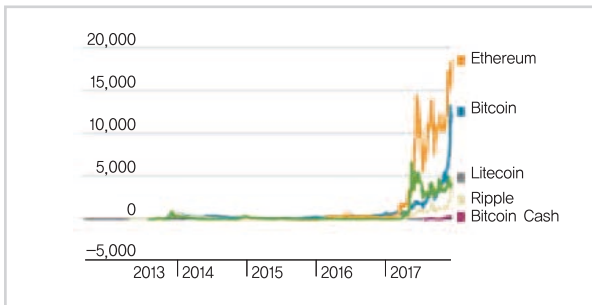
- 또한 대규모 통화증발이 가능한 법정화폐와 달리 가상통화는 공급량의 제한\*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과다한 가격 상승과 대체 가상통화(alternative digital currency)의 발행 급증 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음.

\* 비트코인의 발행량(채굴량)은 최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, 현재 약 1,600만 개가 채굴된 상태임.

-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보유자들도 구매력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음.

〈그림 1〉 가상통화 가격 상승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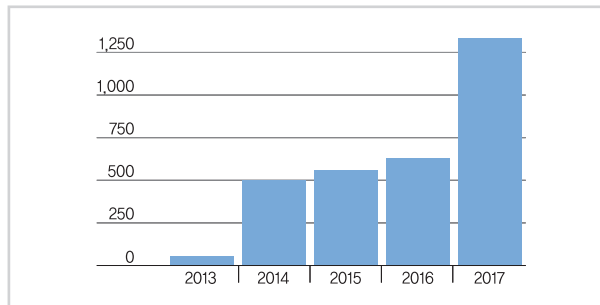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자료 : 코인마켓캡(CoinMarketCap)

〈그림 2〉 가상통화 발행 종류 추이

(단위 : 개)



자료 : 코인마켓캡(CoinMarketCap)

- 가상통화가 투기적 성격을 갖는 증권을 닮아갈수록 가상통화는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.

-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의 경우 구매력의 안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.\*

\* 비트코인 가격은 2012년 이후 하루 평균 3%의 변동률을 보였고, 10% 이상의 변동률을 보인 날도 많았음. 동 기간 중 금 가격은 하루 평균 0.7%, 미 달러화 가치는 6개 주요통화 바스켓 대비 0.3%의 변동률을 각각 보였음.

- 비트코인은 익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과대광고 된 측면이 있음.

- 미국 재무부는 마약거래나 테러자금 등 비트코인을 경유한 불법적인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자금 세탁방지법(anti-money-laundering laws)이나 은행비밀법(bank secrecy act)의 적용 등을 통해 엄격히 차단한다는 입장임.

- 최근 들어 비트코인은 거래건수의 급증과 블록용량의 제한\* 등으로 인해 채굴을 통한 결제처리가 지연\*\*되고 수수료도 상승하고 있음.

\* 비트코인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각 블록 용량은 1메가로 이루어져 있음.

\*\* 당초에는 거래건수가 많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갈수록 거래건수가 급증하면서 결제처리 속도의 제고를 위해 블록용량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됨. 가령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블록용량을 8메가로 확대하여 결제처리 속도를 크게 제고한 경우임.

- 다만 비트코인 결제처리의 경우 은행이나 송금전문업체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음.

-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의 특징들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는 아직 기존의 법정통화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통화라기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매우 뛰어나고 높은 기술혁신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음. **KIF**